광주·전남 주택가격 오름세 둔화

올들어 각각 3.3%, 1.6% 상승에 그쳐

전세가 급등세도 진정…미분양은 늘어

지난해 급등했던 광주·전남지역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올들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는 등 공급여건이 개선됐고 경기불황 여파로 주택 구매여력 등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 주택가격 동향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매매가 상승률이 연간 18.7%, 전남은 10.3% 였던 것이 올 8월 말 광주 3.3%, 전남 1.6%로 각각 떨어졌으며, 전세가도 광주와 전남이 지난해 각각 18.8%와 11.4% 상승에서 올 8월 말까지 1.6%, 3.2%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광주가 지난해 연간 4277가구 였지만 올 들어 8월 말 기준 2918가구, 전남은 연간 3586가구에서 같은 기간 2869가구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것은 광주의 화정동 선수촌과 첨단2지구등 대규모 재건축, 전남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아파트 예정지인 화정지구(2900세대)의 이주가 올 초 마무리됐고 목포 구도심 재개발 및 남악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거래량도 줄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아파트 분양은 광주가 2010년 1566가구에서 2011년 6819가구, 전남이 4543가구에서 8817가구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택구입 주 연령층인 30~64세 인구의 순유입이 광주는 줄고 전남은 증가폭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경기부진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돼 향후 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 가격 약세로 꾸준히 감소했던 미분양주택은 광주가 ▲3월말 1143가구 ▲6월말 1108가구 ▲8월말 3051가구로 증가하고 있고, 전남 역시 ▲3월말 1285가구 ▲6월말 1486가구 ▲8월말 1875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급격히 늘면서 그동안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85㎡ 이하 중소형의 미분양(광주 2921가구·전남 1466가구)도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단기적으로 주택수급여건 개선 및 추가 상승기대 약화, 중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매매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녀수의 감소, 노인가구의 확대로 1~2인가구의 비중이 상승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은행 광양마동점 개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1일 오전 광양시 마동에서 정성우 부행장 및 윤인휴 광양부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마동점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의 152번째 영업점으로 탄생한 광양마동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광양 마동의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광양마동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선벨트 지역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보기금 70명 공개채용

30% 지방, 10% 고졸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오는 15일~22일까지 8일간 2012년도 신입직원 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신보 채용홈페이지(recruit.kodit.co.kr)를 통해 자기소개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오는 12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신보는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학력·나이·전공 등에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인원의 약 30%를 지방인재로, 약 10%를 고졸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률을 장애인, 여성, 인턴직원 등에게도 할애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화인코리아 회생 사조그룹이 방해"

강기정의원 국감서 주장

사조그룹이 나주지역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망했던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가 부도나서 회생하려는데 사조그룹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에 공장을 둔 화인코리아는 1965년 설립해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부도 처리됐다.

화인코리아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이 회사 채권을 사들인 사조그룹이 반대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화인코리아 회생을 위해 간절히 요청했는데도 사조그룹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에서 사조그룹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주진우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참석시켰다"며 질타했다. 강 의원은 오는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중단하라" 11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엑스포 1900억 어치 수출 계약·상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국제Light비전엑스포'에서 1900억원 가량의 수출 계약 및 상담이 진행됐다.

11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제광산업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이 개최된 '2012국제Light비전엑스포'에 동부라이텍·LG이노텍·프로맥LED 등 국내외 200여 업체가 481개 부스를 구성해 참여했다.

엑스포가 열린 사흘동안 총 1만 7000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산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 R&D특구, 광주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일본·러시아 등 23개국에서 광(光)관련 바이어 300여명이 참가해 에프엔엔·케이엘텍 등 96개사와 수출 상담을 해 1475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또 글로벌광통신·우리로광통신 등 53개사에서 423억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친환경 제품인 LED조명과 FTTH 관련 광통신부품, 광계측센서기기·광융합 방송장비 등 광기반 융합제품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LED테마·주제관에서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LED조명 등 총 424개 품목을 활용한 빛의 향연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밖에 수도권 광산업체인 현대이엔티 등 5개사와 66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도 체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

3개월만에 0.25%P 내려…20개월만에 2%대로

기준금리가 연 2.7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석 달 만에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3.0%로 낮아졌다. 이후 석달 뒤인 이달 2.75%로 다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것은 2011년 2월(2.75%) 이후 20개월 만이다.

수출·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외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인하의 주요인이다. 금리를 낮추는 팽창·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인하 결정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극단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올해 4분기부터 경기지표가 나아진다는 일각의 전망은 이번 인하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광공업생산 8월치는 전월 대비 -0.7%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8월 이후 최저인 73.8%에 그쳤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가 위축돼 앞으로도 수출부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침체의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률은 올해 3~4분기 모두 -0.2%로, 내년말까지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갭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올해 3월 이후 안정세다. 한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2.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33.09 (-15.13)
▲ 코스닥지수	534.95 (+1.09)
▲ 금리 (국고채 3년)	2.74% (+0.03)
▼ 원·달러 환율	1,114.30원 (-0.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한은 올 경제성장률 2.4%로 대폭 낮춰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11일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에 발표한 3.0%보다 0.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대내외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3.7%로 봤다가 지난 4월 3.5%, 7월 3.0% 등으로 성장률 눈높이를 계속 낮춰왔다.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망치 2.7%보다 0.3%포인트 낮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대 성장률을 고수하던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예측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